

# 한국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봉합수술에 관한 소고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A Study about Suture Surgery written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Books

Pahng, Sunghye, Woongseok Cha, Namil Kim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way how the suture surgery was operated in case of external wound or incision in past Korea .

The method to do this study was to search the books on the website, Knowledge of Oriental Medicine Web Service, databased and serviced by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searching key word was '縫'.

The results wa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website search, ten subjects of suture surgery could be classified: sword wound(金瘡), horse bite(馬咬), intestine incision(腸肚傷), knife or ax wound(刀斧傷), larynx incision(割喉), intestine protrusion by cow collision(牛觸腸出), self-stabbing of neck(自刎), falling from tree(童稚上木墮下), lip injury(跌損唇皮) and face wound(顏面의 外傷). Furthermore, the kinds of suturing fiber, the way how to stitch, the kinds of medical care before and after the suture surgery could also be found.

Key Words : suture, surgery, incision, wound

### I. 서론

외상의 종류는 가벼운 찰과상에서부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안겨주기도 하는 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벼운 찰과상이라면 새살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외용제를 바르는 것 정도로 치료가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살이 찢어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는 등의 심각한 중상에 이른 경우라면 터져 나온 창자를 제자리에 복귀시키고 찢어진 살을 꿰매는 수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현대에는 자동차 사고나 낙상 혹은 흉기에 의한 자상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치명적인 중상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전쟁으로 인해 칼이나 창에 상처를 입거나 혹은 동물과 부딪히거나 하는 등의 종류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을 것

이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살이 찢어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는 심각한 외상이라면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치료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한의학 문헌의 내용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특히 수술 중에서 찢어진 살이나 조직을 이어주는 봉합수술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여 보았다.

과거에 행해졌던 한의학의 봉합수술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종기를 찢는 수술법에 관한 연구<sup>1)</sup> 및 절상으로 인해 뼈가 어긋난 경우 이를 맞추는 방법에 관한 연구<sup>2)</sup>는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외상으로 찢어진 살이나 조직을 봉합하는 수술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필자는 과거 한국에서 행해진 봉합수술에 관한 문헌의 내용을 찾아 분석하여 과거 한의학의 봉합수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접수 ▶ 2010년 11월 27일 수정 ▶ 2010년 12월 7일 채택 ▶ 2010년 12월 19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1-0672 Fax 02-961-0671 E-mail southkim@khu.ac.kr

## II. 본론

###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봉합수술에 관한 한국 한의학 문헌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전산화한 한의고전명저총서 웹사이트(<http://jisik.kiom.re.kr/>)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한의고전명저총서 웹사이트에는 한국인이 저술한 한의학문헌이 상당수 전산화되어 있어 원하는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봉합을 의미하는 ‘縫’자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 봉합수술에 관한 상당수의 문헌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같은 주제별로 구분해 본 결과 10가지 정도의 봉합수술에 관한 내용들로 정리하여 볼 수 있었다. 이에 그 문헌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서 한국 한의학 문헌에서 나타나는 봉합수술이 행해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문헌 내용 분석

같은 주제의 봉합수술의 내용이 여러 문헌에 걸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오로지 한 문헌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문헌의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앞선 문헌이거나 혹은 봉합수술에 관한 내용이 가장 명쾌한 문헌을 예시로 하여 보겠다. 그리고 앞선 시대의 문헌에서 조금 더 내용이 보태어지면서 내용의 발전이 있는 경우도 역시 빠뜨리지 않고 예시로 하여 살펴보겠다.

#### 1) 金瘡

金瘡이란 칼이나 창과 같은 쇠붙이에 상하여 상처가 생긴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金瘡으로 인해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온 경우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서둘러 봉합수술을 시행하여야 했다. 金瘡으로 인한 腸出에 봉합수술을 시행하는 내용은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구급이해방』, 『의림촬요』, 『언해구급방』, 『사의경험방』, 『증보산림경제』, 『구급단방』, 『양방금단』, 『춘감록』, 『부방편람』, 『의휘』, 『의방합편』, 『인제지』, 『수세보결』 등의 문헌에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중 몇 가지 문헌의 내용을 살펴보자.

#### <金瘡 - 『향약집성방』 문헌 내용>

쇠붙이에 다쳐 창자가 밖으로 나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데에는 상백피를 얼른 채취하여 손질하여 실을 만든다. 닭 벼슬의 피를 바르고 조금이라도 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한 후 (창자를)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상처를 꿰매어준다. 또한 닭의 피를 발라주는데 닭을 죽이면 안된다. 죽이면 효과가 없다. (治金瘡腸出不能入, 桑白皮速取接爲線, 鷄冠血塗, 隙勿令氣泄, 推納之, 綴縫瘡口, 亦以鷄血塗之, 勿殺鷄, 殺無效.)<sup>3)</sup>

#### <金瘡 - 『의방유취』 문헌 내용>

칼에 베인 상처나 기육이 잘려 찢어진 것을 치료하는 처방 : 신선한 상백피를 취하여 실을 만들어 꿰매어 준다. 또 신선한 상백피로 감싸준다. 또 상백피의 즙을 발라주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 (治金瘡, 或肌肉斷裂方 : 右剝取新桑皮作線縫之. 又以新桑皮裹之. 又以桑白汁塗之, 極驗.)<sup>4)</sup>

#### <金瘡 - 『의림촬요』 문헌 내용>

쇠붙이에 다쳐 창자가 밖으로 나온 경우에 뱃가죽이 모두 터지고 창자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엔 치료하기 어려우나, 터졌어도 창자가 끊어지지 않은 경우엔 치료할 수 있다. 대변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청유를 발라서 장을 뱃속으로 넣어주고 상백피로 실을 만들어 꿰맨다. 마로 만든 실도 역시 가능하다. 그런 후 살아 있는 닭의 피를 발라준다. (治金瘡腸出者, 肚皮俱破, 腸全斷難醫, 傷破而不斷者可治. 莫待糞出, 用清油擦活, 放入肚內, 用桑白皮作線縫之. 麻縷亦可. 更以熱雞血塗.)<sup>5)</sup>

#### <金瘡 - 『언해구급방』 문헌 내용>

칼에 베여 창자가 밖으로 나왔으나 끊어지지 않는다면 급히 청유를 바른 후 배 안으로 밀어 넣고, 이어서 상백피로 실로 만든 후 상처를 봉합하여 주고 닭벼슬의 신선한 피를 발라주고 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항상 쌀을 갈아 묽은 죽을 만들어 먹되 백일이 지난 후에야 밥을 먹도록 한다. (金瘡腸出不斷者, 急以清油擦活, 推納之, 續以桑白皮尖作綿縫合, 取鷄冠熱血塗之, 勿令氣泄. 常吃研米稀粥, 百日後乃喫飯.)<sup>6)</sup>

#### <金瘡 - 『춘감록』 문헌 내용>

쇠붙이에 다쳐 손상을 입어 장이 밖으로 나온 경우 갖 떠

은 생물을 뽑아 환자의 몸을 움츠리게 하면 장이 저절로 들어가고 통증이 멎는다. 갈근 가루를 상처에 붙이고 또 갈근을 끓인 즙을 복용시킨다. 혹은 상백피로 실을 만들어 복피를 꿰매어주면 통증이 그친다. 상시회를 바른다. (金瘡傷損腸出, 以新汲泉水噴之令身噤, 腸自入止痛, 宜以葛根末付之, 又煎汁服, 或桑白皮作線, 縫腹皮止痛, 桑柴灰付之.)<sup>7)</sup>

<金瘡 - 『부방편람』 문헌 내용 1>

상백피로 실을 만들어 쇠붙이에 다쳐 창자가 밖으로 나온 것을 꿰매어주고 신선한 닭의 피를 발라준다. 당나라 안금장이 배가 갈라졌는데 이 방법을 써서 나왔다. (桑白皮作線, 縫金瘡腸出, 更以熱鷄血塗之. 唐安金藏刮腹, 用此法而愈也.)<sup>8)</sup>

<金瘡 - 『부방편람』 문헌 내용 2>

마른 인분을 가루낸 것을 바르고 상백피실로 봉합한 후 신선한 닭의 피를 바른다. (乾人屎末抹入, 桑皮線縫合, 熱鷄血塗之.)<sup>8)</sup>

이상의 내용으로 金瘡으로 인한 腸出 시에 봉합수술의 방법을 정리하여 보자면, 먼저 밖으로 나온 창자를 다시 넣기 위해 腸에 계관혈을 바른 후 밀어 넣거나, 淸油를 발라 배 안으로 넣는다. 혹은 갓 떠온 생물을 환자에게 뽑아서 腸이 저절로 들어가게 한다. 봉합을 위한 봉합사로는 얼른 채취한 신선한 상백피로 만든 실이나 麻로 만든 실을 사용하였다. 봉합 수술 후에 상처부위에 행한 처치로는 살아있는 닭의 피를 바르거나, 상백피로 감싸고 상백피 즙을 바르거나 상시회를 발라 주었다. 수술 후 조리로는 맑은 쌀죽을 먹도록 하였고 100일이 지나야 밥을 먹도록 하였다. 예후에 대한 판단은 창자가 완전히 끊어지면 치료하기가 힘들고, 끊어지지 않았으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주 간단한 의안도 보이는데 당나라 안금장이 이 방법을 써서 나왔다고 되어 있다.

2) 馬咬

말이 사람을 물어 상하게 하여 고환이 음낭 밖으로 나온 경우에 봉합수술을 시행한 내용으로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의림촬요』, 『구급단방』, 『의방합편』의 여러 문헌에 걸쳐 등장한다. 이 중 시대 상으로 가장 앞선 『향약집성방』의

내용을 살펴보자.

<馬咬 - 『향약집성방』 문헌 내용>

말이 사람을 물어 고환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밀어서 안으로 넣고 상백피로 가늘게 실을 만들어 꿰매어주고 오계의 간을 가늘게 잘라 덮어준다. 처음 다쳤을 때 소변을 보지 말아야 한다. (治馬咬人陰卵脫出, 推納之, 以桑白皮細作線縫之, 取烏鷄肝細剉以封之, 初傷時勿小便.)<sup>3)</sup>

이 경우 봉합사는 상백피를 사용하였고, 봉합 후의 조리로는 오계의 간을 잘라 덮어 주었으며 주의사항은 소변을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腸肚傷

복부가 터져 창자가 밖으로 노출된 경우에 창자를 복부 안으로 다시 밀어 넣고 복피를 봉합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의방유취』, 『의회』, 『인제지』, 『단방비요경험신편』에 같은 주제의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腸肚傷 - 『의방유취』 문헌 내용 1>

배에 상처를 입어 뱃가죽이 모두 터져 창자가 밖으로 나온 경우, 창자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엔 치료하기 어려우나, 터졌어도 창자가 끊어지지 않은 경우엔 치료할 수 있다. 창자와 뱃가죽이 모두 터진 경우 화예석산을 실 위에 바른 후 가볍게 손을 써서 위에서부터 봉합하여 준 후, 대변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청유를 발라 배 안으로 넣어준다. 뱃가죽이 찢겨서 열려진 경우 마로 실을 만들거나 상백피를 찢어 실을 만든 후 역시 화예석산을 실 위에 바른 후 안에서부터 뱃가죽을 꿰매어주되 바깥의 피부는 꿰매어서는 안 되고 열린 채로 두어야 하며 약을 뿌려서 새살이 생기도록 기다려야 한다. (肚上被傷, 肚皮俱破, 腸出在外, 只腸全斷難醫, 傷破而不斷者, 皆可治療. 腸及肚皮破者, 用花蕊石散傅線上, 輕用手從上縫之, 莫待糞出, 用淸油燃活, 放入肚內. 肚皮裂開者, 用麻縷爲線, 或槌桑白皮爲線, 亦用花蕊石散傅線上, 須用從裏重縫肚皮, 不可縫外重皮, 留外皮開, 用藥摻, 待生肉.)<sup>4)</sup>

<腸肚傷 - 『의방유취』 문헌 내용 2>

만약 배가 터져 창자가 밖으로 나왔는데 대장 소장이 터

지지는 않았으면, 상백피를 참기름에 담귀 두고, 약이나 가루를 써서 지혈을 시킨 후 향유로 핏찌꺼기를 씻어 제거한 후 창자를 안으로 넣어 주고, 침에 상백피실을 꿰어 상처를 봉합한 후에 생기활혈약을 발라주면 자연히 무사하게 된다. 요지는 향유는 상처입은 데에 으뜸가는 약인데 첫째로 지혈시키고 둘째로 균이 생기지 않게 하며 셋째로 새살이 잘 생기게 하니, 만약 상처 입은 곳이 아물지 않을 때 항상 사용하면 기묘한 효과가 있다. (如破肚腸出, 大小腸不曾傷破, 則以桑皮使香油浸, 用藥散止血, 次以香油洗去血穢, 內入, 却以針穿桑白皮線, 縫合傷處, 續以生肌活血藥傅之, 自然無事. 要知香油乃傷損上藥, 壹則止血, 二則不生蟲, 三則生肌, 如被傷處口未合聚, 常用之自有奇效.)<sup>4)</sup>

<腸肚傷 - 『인제지』 문헌 내용>

배가 터져 창자가 밖으로 나온 경우 만약 창자가 완전히 끊어졌으면 치료하기 힘들지만 끊어지지 않았으면 치료할 수 있다. 창자와 뱃가죽이 터진 경우 마를 실로 만들거나 상백피를 실로 만들어 화예석산을 실 위에 바르고 안에서부터 꿰매어주고 창자에 청유를 발라 배 안으로 넣어준 후 피부를 꿰매는데 바깥 피부는 꿰매지 말고 열린 채로 두고 약을 발라 새살이 생기기를 기다려야 한다. 뱃가죽이 터져 창자와 장간막이 모두 나온 경우 먼저 활혈산이나 불수산과 같은 당약을 먼저 복용케 하고 손을 써서 장간막을 뜯어버린다. 이는 쓸데없으므로 마음 놓고 없애도 된다. 그런 후에 창자를 안으로 넣은 후 실을 써서 봉합하고 이어 대소변이 잘 나가게 하는 약을 복용하여 대소변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肚破腸出在外, 若腸全斷難醫, 不斷者可治. 腸及肚皮破者, 麻縷爲線, 或桑白皮尖茸爲線, 以花蕊石散傅線上, 從裏縫之. 腸子則以清油擦活, 放入肚內, 乃縫皮, 不可縫外重皮, 留皮開, 用藥糝待生肉. 傷破肚皮, 腸與脂膏俱出, 先用湯藥, 如活血散, 佛手散, 與服, 用手擘去膏不妨, 此是閒肉, 放心去之. 然後推腸入, 內用線縫之, 仍服通利藥, 勿令二便秘澁.)<sup>9)</sup>

<腸肚傷 - 『단방비요경험신편』 문헌 내용>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온 경우 : 향유를 창자에 발라 안으로 밀어 넣고 마로 만든 실이나 상백피실로 뱃가죽의 내피만 꿰매어주고 갓 눈 소변이나 구기자뿌리 달인 물로 자주 씻어준다. 따뜻한 식초로 씻어주고 산 닭의 껍질을 따듯할 때 붙여주면 나온 후에 저절로 떨어진다. 맑은 죽을 시험

삼아 약간 마시게 하고 찬물과 기름진 음식과 바람을 피하도록 한다. (腹破腸出 : 香油을腸에塗나推入코麻縷이<sup>9)</sup>或桑白皮線로肚의內皮만縫合고熱小便이<sup>9)</sup>或枸杞根煎된湯로頻洗스라. 溫醋로洗入코生鷄의皮을熱貼치면愈後에自落러지<sup>9)</sup>니라. 粥清을少許式飲시고冷水와肥膩物을忌<sup>9)</sup>며風을慎가라.)<sup>10)</sup>

여기서 창자의 봉합과 복피의 봉합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창자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고 창자의 일부분이 터진 경우에 이를 봉합할 때에는 봉합사에 화예석산을 바른 후 창자 윗부분부터 아래쪽으로 봉합하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봉합한다. 그리고 복피를 봉합할 때에는 봉합사에 화예석산을 바르거나 봉합사를 향유에 담그어 둔 후 복피를 봉합하는데, 내피만 봉합하고 외피는 열려둔 채로 두고 약을 발라서 새살이 생기게끔 해야 한다고 하였다. 봉합사는 麻 혹은 상백피로 만든 실을 사용한다.

봉합수술을 하기 전에는 활혈산, 불수산과 같은 당약을 복용시킨다. 이는 어혈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손으로 장간막을 뜯어낸 후에 창자를 배 안으로 넣고 봉합한다. 창자를 원위치로 복위시키기 전에 향유로 핏찌꺼기를 씻어 제거한 후에 안으로 넣어 주는데 향유의 효능에 대해서는 지혈, 균 억제 그리고 새살 축진의 효능이 있다고 특별히 언급하였다. 봉합수술 후에 투여하는 당약은 대소변이 잘 나가게 하는 종류의 약으로 복용시킨다. 봉합 후 상처부위 관리로는 갓 눈 소변 혹은 구기자뿌리 달인 물로 자주 씻거나 혹은 따뜻한 식초로 씻어주고 산 닭의 껍질을 붙여준다고 하였다.

봉합수술 후의 조리로는 맑은 죽을 약간 마시게 하고 찬물과 기름진 음식과 바람은 피하도록 하였다. 예후 예측은 창자가 완전히 끊어졌으면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4) 刀斧傷

칼이나 도끼에 상처를 입은 경우인데, 만약 복부에 상처를 입어 장이 밖으로 나온 경우 이를 봉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향약집성방』, 『의방유취』에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刀斧傷 - 『향약집성방』 문헌 내용>

칼이나 도끼에 상하여 피가 나는 것을 치료할 때에는 흰 석회를 가루내어 다소의 양을 부추즙에 개어서 그늘에 말

러 가루낸 후 약간을 상처 위에 발라준다. 비벼준 약간 후에 피가 그치고 곧 편안해 진다. 만약 장이 터져 밖으로 나오면 상백피실을 이용하여 봉합하여 덮어두고 비단을 묶어서 고정시킨다. (治惡瘡刀斧傷見血, 白石灰爲末, 不以多少, 韭汁調, 陰乾爲末, 少許傅上, 擦少時血止便安, 如腸潰出, 用桑白皮線縫合, 罨之帛繫定.)<sup>3)</sup>

역시 상백피실로 봉합하였고, 봉합 후에는 비단으로 고정하였다.

5) 割喉

목구멍을 찢린 경우에 다친 목구멍을 봉합수술하는 내용으로 『의방유취』에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割喉 - 『의방유취』 문헌 내용>

무릇 목구멍을 찢린 경우 병자의 머리 위에 올라타서 실로 안쪽의 후관을 먼저 봉합한 후 바깥쪽의 후관을 이어서 봉합하고 봉혈약을 쓴다. (중략) 만약 후결의 상처가 심각하고 연후가 끊어졌으면 치료할 수 없다. 후결 아래의 식후관이 끊어졌다면 물을 쥐보아서 창자로 들어가면 치료할 수 있고 밖으로 나오면 치료할 수 없다. (凡割喉者, 用脚騎患人頭項, 以絲線先縫內喉管, 却縫外喉管, 用封血藥. .... 若喉結傷重, 軟喉斷不治, 結下食喉管斷, 以湯與之得入腸可治, 若竝出不可治.)<sup>4)</sup>

봉합사는 실(絲線)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실의 종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봉합방법은 먼저 안쪽의 후관을 봉합한 후에 바깥쪽의 후관을 봉합하였다. 예후에 대한 판단으로는 후결의 상처가 심각하고 연후가 끊어졌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식후관이 끊어졌는데 물을 쥐서 창자로 들어가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물이 밖으로 나오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6) 牛觸腸出

소에 부딪혀 상처를 입어 창자가 밖으로 나온 경우 이를 봉합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언해구급방』, 『사의경험방』, 『증보산림경제』, 『광제비급』, 『양방금단』, 『의휘』, 『의방합편』, 『인제지』, 『수진경험신방』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牛觸腸出 - 『사의경험방』 문헌 내용>

소에 받혀 다쳐서 창자가 밖으로 나오면 곧 청유를 창자에 바르고 손으로 밀어서 넣는다. 말꼬리털을 침에 꿰어 봉합한 후에 갖 눈 오줌이나 구기자뿌리 달인 물을 약간 따뜻하게 하여 자주 씻어주고 양고기국을 10일간 먹으면 낫는다. (牛觸傷腸出, 卽以清油塗腸, 用手推入, 馬尾貫針以縫, 熱尿或枸杞根煎水, 微溫頻洗, 喫羊羹十日愈.)<sup>11)</sup>

<牛觸腸出 - 『증보산림경제』 문헌 내용>

소에 부딪혀 창자가 밖으로 나왔는데 끊어지지 않는 경우 급히 청유를 창자에 바르고 손으로 밀어서 넣고 상백피로 복피를 봉합하고 봉합한 자리 위에 혈갈 가루나 백초상 가루를 바른다. 갖 눈 오줌으로 항상 씻어주거나 혹은 구기자뿌리껍질을 끓인 물로 씻어준다. (牛觸腸出, 腸出不斷者, 急以清油摸腸, 用手推入, 以桑白皮尖, 縫合肚皮, 縫上糝血竭末, 或百草霜末, 以熱尿常洗之, 或枸杞根皮煎湯, 洗之.)<sup>12)</sup>

<牛觸腸出 - 『의휘』 문헌 내용>

소에 받혀 창자가 밖으로 나왔으며 아직 손상되지 않은 경우 급히 사람을 보내어 상백피나 혹은 생마로 실을 만들어 꿰매어 주고 혈갈가루나 백초상가루를 위에 발라주면 피가 멈춘다. 혹은 인삼지골피탕으로 씻어주면 피부가 저절로 아문다. 혹은 말갈기로 봉합하고 갈근을 마시게 하거나 혹은 향유를 발라줘도 된다. (牛觸腸出, 不損者, 急送人, 以桑白皮尖, 或生麻爲線縫之, 上糝血竭末, 或百草霜末, 血止, 或人蔘地骨皮湯淋之, 皮自合, 或馬驥縫合, 服葛根, 或以香油塗之.)<sup>13)</sup>

정리해 보자면 먼저 청유를 창자에 발라 손으로 밀어 넣는다. 그런 뒤 봉합사로는 말꼬리털, 말갈기털, 상백피, 혹은 생마를 이용하여 봉합한다. 봉합 후의 처치로는 갖 눈 오줌이나 구기자뿌리 달인 물로 씻어주거나, 봉합한 자리에 혈갈 가루 혹은 백초상 가루를 바른다. 혹은 인삼지골피탕으로 씻어주면 피부가 저절로 아문다. 혹은 갈근을 마시게 하거나 향유를 발라준다. 봉합 후의 조리로는 양고기국을 10일간 먹도록 한다.

7) 自刎

스스로 목을 베어 후흉을 다친 경우에 이를 봉합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광제비급』, 『의휘』, 『인제지』에서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自刎 - 『광제비급』 문헌 내용>

스스로 목을 베는 것을 치료하는 법 : 어떤 사람이 도적을 잡다가 그만 분하여 자기 목구멍을 베어버려 피가 솟구쳐 나왔다. 상백피로 봉합한 후에 시험 삼아 물을 마시니 물이 흘러 나와 그 빈틈을 봉합하였다. 사람들이 죽겠구나 말하였다. 석회를 따뜻한 물에 개어 바르고 궁귀탕 십여첩을 내복하니 수십일 만에 나왔다. (救自刎方 : 一人被嚇拘賊, 憤惋自刎斷其喉嚨, 氣血迸出, 以桑白皮合縫, 試之飲水, 則流出, 縫罅, 人謂必死, 外用石灰溫水和付, 內服芎歸湯十餘貼, 數十日, 得差.)<sup>14)</sup>

봉합사로는 상백피실을 이용하고, 봉합 후에 제대로 봉합이 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해 물을 마시게 하여 물이 흐르는 빈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다시 봉합하여 준다. 봉합 후 처치로는 석회를 따뜻한 물에 개어 바르고, 궁귀탕을 복용케 한다.

8) 童稚上木墮下

어린아이가 나무에 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져 나무쪽에 뱃가죽이 찢린 것을 봉합한 것에 관한 내용이다. 『광제비급』, 『의휘』, 『인제지』에서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童稚上木墮下 - 『광제비급』 문헌 내용>

어린아이가 과일나무에 오르다가 아래로 떨어져 마른 나무쪽에 베여 뱃가죽이 벌어지고 창자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말꼬리로 상처를 봉합한 후에 곁에 뜨거운 개똥을 붙이고 안으로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하니 오래지 않아 나왔다. (童稚上果木墮下, 爲枯槎所剝, 腹皮迸裂, 腸子露現, 以馬尾合縫, 外付熱狗屎, 內服柔軟之物, 不久得差.)<sup>14)</sup>

봉합사는 말꼬리를 이용한다. 봉합 후의 처치로는 뜨거운 개똥을 붙이고 봉합 후의 조리로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도록 한다.

9) 跌損唇皮

입술을 다친 경우 이를 봉합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일금방』에서만 이 내용이 나타난다.

<跌損唇皮 - 『일금방』 문헌 내용>

입술이 손상된 경우에 상백피로 실을 만들어 꿰매어주고 생기산을 발라주면 저절로 아문다. (跌損唇皮之類, 以桑白皮作線縫之, 以生肌散, 滲之自合.)<sup>15)</sup>

봉합사는 상백피실을 이용하고 봉합 후에는 생기산을 바른

10) 顏面의 外傷

날카로운 칼로 안면에 절상을 입은 경우 이를 봉합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가정구급방』에서만 나타나는 내용이다.

<顏面의 外傷 - 『가정구급방』 문헌 내용>

제2절 안면의 외상 (치료법) 날카로운 칼로 인한 절개상은 먼저 소독한 후에 출혈부위를 결찰하여 세밀하게 봉합한다. 한번에 유합하나 특히 안검이나 구순비강 등의 봉합은 십분 주의를 가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으며, 만약 출혈이 극심할 때엔 방부면사 즉 석탄산면사로 상처부위를 막아서 지혈법을 시행하고 그 위에 지혈면화 즉 격노아철액면화를 덮고 압박붕대를 감은 후에 급히 외과의원으로 보낼지라. (第二節 顏面의 外傷 (救療法) 銳利한 劍刀으로 由한 切傷은 先히 消毒한 後에 出血部를 結紮하고 細密히 縫合하 第一期에 癒合하 나 特히 眼 臉 口 唇 鼻 腔 等의 縫合은 十分의 注意를 不加하 면 癩痕을 殘留하며 若 出血이 極甚할 時 難防腐 綿紗 即 石炭酸 綿紗로 創腔을 填充하야 姑息 止血法을 施하고 其上에 止血 綿花 即 格魯兒 鐵液 綿花를 覆蓋하고 壓迫 繃帶를 施한 後에 急히 外科醫院에 輸할지니라)<sup>16)</sup>

봉합 전 상처부위를 소독 후에 출혈부위를 결찰해 준다. 그런 뒤 세밀히 봉합한다. 주의사항은 안검부, 구순부, 비강부위는 주의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혈이 심하면 방부면사로 막아서 지혈하고 지혈면화로 덮고 압박붕대로 감은 후에 외과로 전송시킨다.

### 3. 고찰

이상의 金瘡, 馬咬, 腸肚傷, 刀斧傷, 割喉, 牛觸腸出, 自勿, 童稚上木墮下, 跌損唇皮, 顔面의 外傷 10가지 경우를 통해 봉합수술에 관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

용에는 가벼운 피부의 절개상에서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의 창자나 후관의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10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문헌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각종 봉합수술이 행해진 경우 및 해당 문헌>

	金瘡	馬咬	腸肚傷	刀斧傷	割喉	牛觸腸出	自勿	童稚墮下	跌損唇皮	顔面外傷
『향약구급방』	0									
『향약집성방』	0	0		0						
『의방유취』	0	0	0	0	0					
『구급이해방』	0									
『의림촬요』	0	0								
『인해구급방』	0					0				
『사의경험방』	0					0				
『증보산림경제』	0					0				
『구급단방』	0	0								
『광제비급』						0	0	0		
『양방금단』	0					0				
『의방합편』	0	0				0				
『인제지』	0		0			0	0	0		
『부방편람』	0									
『의휘』	0		0			0	0	0		
『수진경험신방』						0				
『단방비요경험신편』			0							
『춘감록』	0									
『일금방』									0	
『수세보결』	0									
『가정구급방』										0

그리고 봉합 전 처치, 창자의 복위 방법, 봉합사 종류, 의안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봉합수술 방법, 봉합 후 처치, 예후 판단, 조리법, 주의사항,

<표 2. 봉합수술에 관한 내용 정리>

봉합 전 처치	金瘡	- 마른 인분을 가루내어 바름
	腸肚傷	- 활혈산, 불수산과 같은 탕약을 복용 - 장간막(脂膏)를 뜯어냄
	顔面의 外傷	- 환부를 소독하고 출혈부위를 걸찰함
창자의 복위방법	金瘡	-腸에 계관혈을 바른 후 밀어 넣음 - 청유를 발라 배 안으로 넣음 - 갓 떠온 썸물을 환자에게 뱉어서腸이 저절로 들어가게 함
	腸肚傷	- 향유로 피찌꺼기를 씻어 제거한 후 창자를 안으로 넣음
	牛觸腸出	- 청유를 창자에 발라 손으로 밀어 넣음
사용한 봉합사 종류	金瘡	- 상백피로 만든 실 - 麻로 만든 실
	馬咬	- 상백피로 만든 실

한국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봉합수술에 관한 소고

	腸肚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麻로 만든 실</li> <li>- 상백피로 만든 실</li> <li>- 화예석산을 봉합사 위에 발라 씌</li> <li>- 상백피실을 참기름에 담궜다가 씌</li> </ul>
	刀斧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백피로 만든 실</li> </ul>
	割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絲線)</li> </ul>
	牛觸腸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꼬리털</li> <li>- 말갈기털</li> <li>- 상백피로 만든 실</li> <li>- 麻로 만든 실</li> </ul>
	自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백피로 만든 실</li> </ul>
	童稚上木墮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꼬리털</li> </ul>
	跌損唇皮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백피로 만든 실</li> </ul>
봉합방법	腸肚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자의 위에서부터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봉합함</li> <li>- 복피는 내피만 봉합하고 외피는 꿰매지 말고 약을 발라 새살이 생기도록 함</li> </ul>
	割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안쪽의 후관을 봉합한 후에 바깥쪽의 후관을 봉합함</li> </ul>
	自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합 후에 제대로 봉합이 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해 물을 마시게 하여 물이 흐르는 빈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다시 봉합함</li> </ul>
봉합 後 치치	金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아 있는 닭의 피를 바름</li> <li>- 상백피로 감싸고 상백피 즙을 바름</li> <li>- 상시회를 바름</li> </ul>
	馬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계의 간을 잘라 덮음</li> </ul>
	腸肚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소변이 잘 나가게 하는 종류의 약을 복용시킴</li> <li>- 갓 눈 소변, 구기자뿌리 달인 물로 자주 씻음</li> <li>- 따뜻한 식초로 씻어줌</li> <li>- 산 닭의 껍질을 붙임</li> </ul>
	牛觸腸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갓 눈 오줌이나 구기자뿌리 달인 물로 씻음</li> <li>- 혈갈 가루 혹은 백초상 가루를 바름</li> <li>- 인삼지골피탕으로 씻어줌</li> <li>- 갈근을 마시게 함</li> <li>- 향유를 발라줌</li> </ul>
	自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회를 따뜻한 물에 개어 바름</li> <li>- 궁귀탕을 복용케 함</li> </ul>
	童稚上木墮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뜨거운 개똥을 붙임</li> </ul>
	跌損唇皮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산을 바름</li> </ul>
예후 판단	金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자가 완전히 끊어지면 치료하기가 힘들고, 끊어지지 않았으면 치료가 가능함</li> </ul>
	腸肚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자가 완전히 끊어졌으면 치료하기 어려움</li> </ul>
	割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결의 상처가 심각하고 연후가 끊어졌으면 치료가 불가능</li> <li>- 식후관이 끊어졌는데 물을 쥐서 창자로 들어가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물이 밖으로 나오면 치료가 불가능</li> </ul>
조리법	金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죽을 먹도록 하고 100일이 지난 후 밥을 먹도록 함</li> </ul>
	腸肚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맑은 죽을 약간 마시게 함</li> <li>- 찬물과 기름진 음식과 바람은 피하도록 함</li> </ul>
	牛觸腸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고기국을 10일간 먹도록 함</li> </ul>
	童稚上木墮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드러운 음식을 먹도록 함</li> </ul>
주의사항	馬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변을 보지 않도록 함</li> </ul>
	顔面의 外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검부, 구순부, 비강부위는 주의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을 수도</li> <li>- 출혈이 심하면 방부면사로 막아서 지혈하고 지혈면화로 덮고 압박붕대로 감은 후에 외과로 전송</li> </ul>
의안	金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나라 안금장이 이 방법을 써서 나왔음</li> </ul>

봉합 전에 활혈산이나 불수산과 같은 탕약을 사용하여 어혈을 제거하였고, 계관혈이나 향유를 사용하여 창자에 묻은 불순물을 직접 씻어 제거하였다. 이 중 향유의 효능에 대해서는 지혈, 균 억제, 새살 축진의 작용이 있다고 직접 지목하기도 하여 봉합수술 전후에 지혈, 살균, 생기의 목적으로 향유를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봉합수술에서 사용된 봉합사로는 桑白皮線, 麻線, 馬尾, 馬鬃, 絲線가 쓰였다. 봉합사가 되기 위해서는 봉합수술 시의 통증이 적어야 하고 봉합 시 조직을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므로 실이 가늘어야 할 것이다. 또 봉합 중에 실이 끊어지면 안되므로 실이 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봉합 부위 인체 조직과의 격렬한 저항반응이 없어야 하므로 청결하고 안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응급한 상황에 열린 봉합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것이 상기 桑白皮線, 麻線, 馬尾, 馬鬃, 絲線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馬尾의 경우 봉합사로 처음 언급된 것이 『사의경험방』에서 牛觸腸出을 봉합하는 경우이다. 桑白皮나 麻의 경우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고루 등장하는 반면에, 馬尾는 조선 중기에서부터 후기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에 이르러 동물성 봉합사가 새로이 채택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 소고에서 예시한 10가지 경우 중에서 牛觸腸出, 自刎과 童稚上木墮下는 주로 경험방서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自刎과 童稚上木墮下는 『광제비급』, 『의회』, 『인제지』에서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自刎과 童稚上木墮下는 실제 조선에서 발생하였던 일이 『광제비급』에 기록되고 이후 『의회』와 『인제지』에까지 인용된 의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봉합수술 후에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은 봉합한 상처부위가 덧나지 않게 하고 균이 침입하여 화농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빨리 새살이 생겨서 상처가 유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용한 것이 살아 있는 닭의 피, 상백피즙, 상시회, 오계의 간, 갓 눈 소변, 구기자뿌리 달인 물, 식초, 산 닭의 껍질, 혈갈 가루, 백초상 가루, 인삼지골피탕, 향유, 석회, 생기산 등이었다. 이 중 특히 살아있는 닭의 껍질을 붙이면 상처가 나은 후에 저절로 떨어진다고 한 부분은 생체(生體)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동중요법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게 봐들 만 하다.

顔面의 外傷이 기록된 『가정구급방』의 경우 일제시대인 1928년 저술된 문헌이었다. 당시는 한의사와 양의사가 공

존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안면의 외상의 경우 출혈이 극심할 때엔 지혈과 압박을 행한 후에 외과의원으로 보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출혈이 심하지 않은 외상의 경우 상처 봉합은 한의사가 직접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근현대까지만 하여도 한의사가 봉합수술을 직접 시행하였다는 것을 가정구급방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봉합수술과 관련하여 드는 의문점은 과연 이러한 봉합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조그인 「針과 刀를 이용한 수술법에 대한 문헌 조사」에서 마취제에 관해 일부 언급한 바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III. 결론

이상으로 한의고전명저총서 웹사이트에 전산화된 한국 한의학 문헌에서 봉합수술에 관해 검색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 봉합수술이 행해진 경우, 봉합수술 전후의 처치 과정 및 봉합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고, 봉합수술이 행해진 경우가 가벼운 피부의 외상에서부터 심각한 복부 손상이나 후관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봉합수술이 필요한 경우 중에서 특히 창자를 봉합하거나 후관을 봉합하는 것처럼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봉합은 숙련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단지 봉합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봉합 전후에 필요한 처치나 조리방법 그리고 예후에 대한 판단까지도 함께 엿볼 수 있어서 당시의 봉합수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소고는 한의고전명저총서 웹사이트에서 ‘縫’자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만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검색과 연구를 행한다면 한의학의 봉합수술에 관한 더욱 깊이 있고 정밀한 연구결과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1. 방성혜, 「針과 刀를 이용한 수술법에 대한 문헌 조사」, 『한국의사학회지』20-2, 2007

2. 김영곤, 『『의방유취』를 통해 본 조선전기 절상의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 俞孝通 외, 『鄉藥集成方』,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4. 韓繼喜 외, 『醫方類聚』,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5. 楊禮壽, 『醫林撮要』,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6. 許浚, 『諺解救急方』,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7. 李永春, 『春鑑錄』,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8. 黃度淵, 『附方便覽』,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9. 徐有渠, 『仁濟志』,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10. 申海容, 『單方秘要經驗新編』,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11. 李碩幹 외, 『四醫經驗方』,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12. 洪萬選, 『增補山林經濟』,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13. 錦里散人, 『宜彙』,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14. 李景華, 『廣濟祕笈』,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15. 金弘濟, 『一金方』,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16. 朴容南, 『家庭救急方』,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